

다일천사병원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다. 노숙자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 곳에 상근하는 의사는 최영아 의무원장 뿐이다.

교회 선배의 권유로 의예과 재학시절에 무료진료 봉사를 시작했다는 최 원장은 다일천사병원이 지어지기 전부터 병원과 함께 해왔다. 내과 전문의를 따고 바로 이곳에 몸담았을 때 병원 부지만 있고 건물도 없어서 현재의 병원을 지을 때 설계까지 했단다. 그렇게 병원을 짓는데 2년, 진료 2년 해서 4년을 병원과 함께 했다.

“의사라고 하면 요즘도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미래 포기하고 후회가 없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인생공부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 중 중증환자가 참 많아요. 길에서 다니시니까, 병원갈 돈이 없으니까 병을 많이 키워서 오죠. 쉽게 말해서 환자 자체가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다보니 임상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하도 여러 종류의 환자를 다 만나니까요.”

다일천사병원을 거쳐 간 3천여명의 환자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길거리에서, 쪽방에서 홀로 외롭게 ‘다일천사병원’ 이라고 적힌 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운명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단다.



최영아 다일천사병원 의무원장


취재_유 소 영

“요즘 의사들은 환자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병보다 사연이 더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료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사연까지 풀어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다 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다른 치료보다 더 고마워하시죠. 그거 들으면서 저도 인생을 많이 배워요.”

병원 이곳저곳에 붙은 딱지만큼이나 개원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장비를 기증해주신 분, 병원을 짓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벽을 뒤덮고 있는 이곳에서는 진료도 여러 의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내과 전문의인 최 원장이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오면 자원봉사 하는 의사에게 전원시킨다.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들

을 관리하고 적절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 또한 최 원장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이제 최 원장은 당분간 병원을 떠나있을 예정이다. 휴식시간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생각이 다. 정부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공공의료가 보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해보고 싶단다.

궁극적으로는 요양원을 설립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의사를 연결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는 최 원장은 다일천사병원을 떠나서도 더 많이 배워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것이라고 밝혔다.  2004



송승환 BMC 프로덕션 대표

취재_유 소 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배우, 또는 '난타'라는 퍼포먼스의 기획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 그를 청년의사신문 창간기념식에서 '소년소녀 가장 주치의 맺어주기 운동'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만났다. 자신도 한때 '소년가장'이었다고 소개한 송 대표. "아버지께서 사업에 연달아 실패하시면서 저 역시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가세가 한창 기울었을 땐 제가 아역배우를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때 그 상황을 비판하지 않았던 건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일을 하면서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취지가 좋아 동참하긴 했지만 사실 배우, 공연기획자, 또 라디오 진행자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어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직접 접할 기회는 자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좌석나눔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난타, 도깨비 스톱, 어린이 난타 등을 보러 온 아이들이 공연 내내 즐거워하고 또 웃으며 돌아갈 때는 작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요즘 국내에 뮤지컬 붐이 일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공연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아요." 송 대표는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좌석나눔이나 자선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히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2004